

폭염 탓?... 말라버린 400살 느티나무

장성군 단전리 '장군 나무' 우표에도 나온 천연기념물 예년보다 한달 먼저 변색 道, 4천여그루 일제조사

'폭염에 지친 걸까. 관리가 부족했던 탓은 아닐까.'

전국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로 천연기념물 제478호로 지정된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느티나무가 올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나무 전체 잎이 타들어가듯 마르는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400년 이상 마을을 지켜온 신목(神木)이 예년 보다 한달 이상 빠르게 물들자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폭염의 영향 탓'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협소한 단전리 느티나무의 생육공간이 장기적으로 나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단전리 느티나무 잎이 평년보다 빠르게 갈색으로 물드는 이상증세를 보여 이날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전문위원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단풍이 예년보다 40여 일 이상 빠르게 진행돼 걱정스런 마음에 면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알렸다"며 "지난 8월 말부터 갈색 빛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주말(4일)을 지나고 나서는 초록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전리 느티나무는 주변 다른 나무들과도 확연하게 차이날 만큼 이상증세가 심각하다. 특히 예년 단풍과 달리 일부 잎사귀가 타들어가듯 말라버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상증세의 원인을 폭염과 노거수가 성장하기에 협소한 생육공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느티나무와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478호)가 폭염과 협소한 생육공간 탓에 예년보다 40여 일 빠르게 잎사귀가 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불과 10여m 떨어져 있는 국도 1호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북하면과 접유를 잇는 국도 1호선은 지난 7월 확장 개통했다.

정종수 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날씨가 더워 수분이 공급되는 조건 자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 나무가 일찍 단풍을 만들고 휴면에 들어간 상태"라며 "다행히 아직까지 나무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분 공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교수는 "나무 옆에 큰 도로(4차선)가 지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며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

를 이설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나무병원 문성철 원장은 "단전리 느티나무는 지상부의 나무 줄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하부의 뿌리는 협소한 생육공간 탓에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나무가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수분과 영양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전리 느티나무의 수령은 4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20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10.5m다. 지상에서 3m 위치에서 줄기가 다섯 가지로 갈라져 뻗은 것이 특징이다. 이 나무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김충로를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지면서 '장군나무'라고도 불리며 2009년 '한국의 명목' 우표로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46그루(군락), 보호수 4000여그루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해질녘 10:20
해질녘 18:52 달일출 21:40

아침 저녁 '쌀쌀' 대체로 흐리다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1/32	보성	구름많음	19/30
목포	구름많음	20/29	순천	구름많음	22/32
여수	구름많음	23/29	영광	구름많음	20/31
나주	구름많음	20/32	진도	구름많음	20/30
완도	구름많음	21/30	전주	구름많음	21/31
구례	구름많음	20/32	군산	구름많음	20/30
강진	구름많음	20/31	남원	구름많음	19/31
해남	구름많음	21/31	축산도	구름많음	21/26
장성	구름많음	19/31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면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	☀	☀	☀	☀	☀	☀
22/29	20/29	20/29	20/29	20/29	20/29	20/29

조선대 총장 선거 '7파전'

후보등록 마감... 20일 본투표

조선대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조선대는 5일 오후 5시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7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가나다순)는 ▲강동원 치의학과 교수 ▲민영돈 의학과 교수 ▲박대환 북일어문학과 교수 ▲이계원 경영학부 교수 ▲이종범 역사문화학과 교수 ▲임동운 의학과 교수 ▲차용훈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다.

총장추천위원회는 후보 자격 심사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뒤 투표용지

제작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추위는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3명씩 추천한 위원 12명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무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장 선거는 오는 6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합동연설회(9일), 사전투표(12~13일)를 거쳐 2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교수 76%, 직원 13%, 학생 7%, 총동창회 3%의 비율로 치러지며 교수와 직원, 총학생회, 총동창회의 투표함을 별도 설치·운영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세한대·나주 고구려대·여수 한영대·광양보건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퇴출 위기'

구조개혁평가 D·E 등급...순천 청암대 등 전문대 15곳은 해체

영암 세한대, 나주 고구려대, 여수 한영대, 광양보건대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4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중 D~E 등급 일반

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개 대학(3그룹)의 경우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세한대 등 일반대 9곳과 고구려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곳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II 유형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서남대 등 일반대 7곳과 광양보건대 등 전문대 5곳(E등급)은 국가장학금 I·II 유형 모두가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순천 청암대 등 전문대 15곳은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대학이 안팎에서는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 계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부는 또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광양보건대 등 5개 대학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 필요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 A~E 등급을 매겼다.

교육부측은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뜬다

오늘부터 지정차로 위반 단속

6일부터 전남지역 고속도로에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지역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2대를 배치해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문에 부착된 경찰마크를 제외하면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아 경찰차량임을 알아보기 어렵

다. 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갓길 운행, 암체운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경광등과 전광판, 사이렌을 켜고 정체를 드러낸다.

전남경찰청은 제5지구대에 순찰요원 2명을 추가 증원해 암행차량 전담요원을 편성, 전남도내 고속도로를 암행순찰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Hello, Modern
고산시간여행축제

근대, 추억을 만나다

고산시간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454-3343 festival.gunsan.go.kr

DreamHub GUNSAN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